

## 서울大 冠岳舍의 특징

黃 載 璣

(서울大 寄宿舍 舍監)

### 1. 시작하는 말

寄宿舍, 그것은 어떤 意味를 지니고 있는가?

“멋있는 산이 바다다 보이는 방이 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면 방 안은 수십 권의 책, 책상, 침대, 그리고 옷장,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꾸며진 공간이다. 책상 위 조그만 사진 액자 속에는 보고 싶은 얼굴들, 황혼의 잔 물결이 기우는 산 너머 저편에 두고은 가족과 친구 그리고 고향의 기억이 함께 기운다. 밤 깊은 캠퍼스 한쪽 구석에 새벽이 되도록 장대를 이야기하고, 이상과 현실, 갈등의 논리 속에 선배와 후배가 밤새워 討論과 攻駁으로 함께 하는 자리가 있다.”

청소년 시절에 읽은 「B舍監과 러브레터」에 나타나는 寄宿舍와 현재의 大學 寄宿舍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大學의 寄宿舍는 변하지 않는 순수함과 젊음의 열기와 꺼지지 않는 정열이 있는 곳이다. 대학에서 진정한 젊음과 지성을 만날 수 있는 곳은 寄宿舍 生活를 통해서라고 하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방 학생이 대학에 첫 발을 들여놓고 가슴 실레는 대학생으로서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곳은 대부분 下宿村, 自炊房, 考試院, 그리고 大學의 寄宿舍 등의 주거 유형일 것이다.

흔히들 대학을 象牙塔이라고 부르고 있다. 대

학이 象牙塔으로서 진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구에서도 대학에서 圖書館과 寄宿舍를 가장 중요한 施設로 여겨 우선적으로 설립하듯이 대학의 教育 支援施設인 寄宿舍가 대학인을 위해 그 맡은 바 역할을 잘 수행했을 때 대학의 본질적인 기능도 원만히 이루어지리라 생각된다.

서울大 冠岳舍가 학문의 요람이요 대학의 본산인 관악산 기슭에 문을 열고 신입생을 받기 시작한 지도 15년이란 기간이 지나갔다. 그동안 대학의 수 많은 젊은이들이 冠岳舍에 모여 지혜와 인격을 도야한 후 사회로 나갔다. 서울大 冠岳舍가 서울大人의 인격 발전과 教育 支援施設로서, 또한 지방 학생들의 공동 생활 터전으로서 십수 년을 거쳐 오는 동안 그 意味와 運營方向이 변하였다.

寄宿舍生에게는 大學生活의 대부분을 보내게 될 寄宿舍 生活이 어떤 의미로 다가와 있으며 寄宿舍 生活를 통하여 무엇을 추구하였는지, 그리고 진정한 寄宿舍가 젊음과 학문과 지성의 보금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설과 운영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가? 이 글에서는 서울大 冠岳舍의 運營 및 施設의 特徵을 중심으로 大學에서 寄宿舍의 役割과 意味를 검토하고자 한다.

## 2. 沿革 및 組織

### 1) 現況

서울대 캠퍼스는 冠岳·水原·蓮建 캠퍼스로 분리되어 있으며, 그 각각에 특색 있는 寄宿舍 施設을 구비하고 있다. 관악 캠퍼스에 관악사, 농과대학 및 수의과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水原 캠퍼스에는 남학생을 위한 상록사, 여학생을 위한 녹원사, 蓮建 캠퍼스에는 간호학과 3·4학년 을 위한 합춘사, 의·치대 남학생을 위한 정영사, 재일등포 및 의·치대생을 위한 왕릉사 등이 각 캠퍼스별로 있으며, 각 寄宿舍別로 여건에 따라서 그 收容人員이나 運營方式이 상이하다.

〈표 1〉 서울대 기숙사 현황

구분	관악사	상록사	녹원사	정영사	왕릉사	합춘사	합 계
남	1,850	392	—	90	60	—	2,392
여	498	—	60	—	—	112	670
합계	2,348	392	60	90	60	112	3,062

### 2) 設立目的 및 沿革

서울대 冠岳舍는 ① 지방 출신 신입생들의 생활 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 흡수, ② 학생들의 면학을 위한 편의 제공과 공동 생활을 통한 인격 도야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다. 서울대 綜合化計劃에 따라 1975년 8월에 ‘서울大學校設置令’ 제14조에 의거하여 관악사 5개동(현재 구관 11동~15동) 및 식당 1개동(현재 후생 1동)을 개사한 이래 1990년 현재 관리동 1동, 후생동 2동 및 사생동 13개동에 2,348명(남자 1,850명, 여자 498명)의 사생이 함께 생활하는 대단위 寄宿舍로 성장하였다. 寄宿舍 생활의 의의는 학생들에게 수학을 위한 宿食生活의 편의를 도모하고 寄宿舍 生活를 통해 사회 생활의 기본이 되는 협동 정신을 배양하여 강의실에서 전달될 수 없는 생활 속의 산 교육의 장으로 육성하는데 있다.

#### 〈연 령〉

- 1975. 8. 30 서울대학교 설치령 제14조에 의거, 관악사 5개동 및 식당 1개동 개사(남학생 97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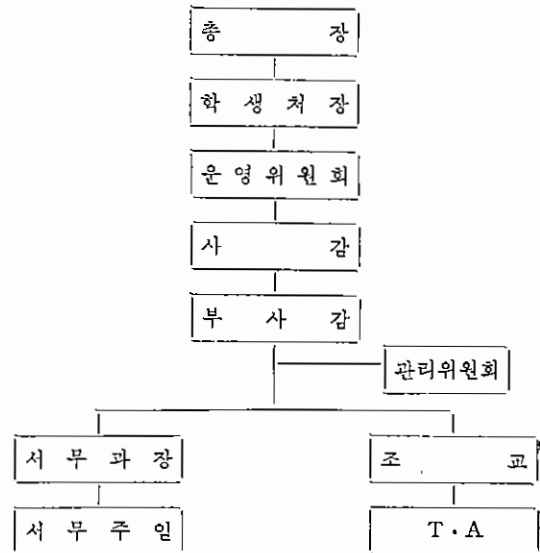
- 1982. 3. 1 4개동 및 식당 1개동 개사(남학생 692명)
- 1983. 3. 1 2개동 개사(여학생 288명)
- 1986. 3. 1 1개동 개사(남학생 204명)
- 1989. 9. 1 관리동 개사
- 1990. 3. 1 1개동 개사(남학생 298명)
- 1990. 7월 현재, 관리동 1동, 후생동 2동, 사생동 13동(2,348명 수용)

### 3) 組織

大學의 教育 支援施設의 하나인 寄宿舍를 운영하기 위해 冠岳舍는 관리위원회, 조교, 행정사무 부분으로 분리·구성되어 유기적인 협조에 운영되고 있다.

冠岳舍의 組織은 寄宿舍의 업무를 관장하는 사감과 부사감이 있으며, 본교에 재임하는 교수로서 각 대학의 위촉에 의해 구성된 관리위원회가 있어서 사생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숙사의 제반 제도나 운영 방식 등 각종 안전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한편, 각 등에서 사생들과 함께 숙식을 하고 사생들의 학업과 생활에 관한 여러 일들을 의논하며 도움을 주기 위해 조교와 T·A가 있다. 그리고 기숙사의 여러 조직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며 서무, 경리, 사생의 입·퇴사 처리 등의 일을 하는 서무 행정 부분이 있다.

〈표 2〉 서울대 기숙사 조직표



### 3. 行政 및 施設

#### 1) 行政案內

##### (1) 業務運營

冠岳舍는 '서울대학교 학칙'과 '서울대학교 기숙사 규정' 그리고 사생이 공동 생활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된 '사생 생활 수칙'에 의해 사감의 감독·책임 아래 운영되며, 또한 새로이 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할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토의·결정되어 시행된다.

##### (2) 舍生選拔

寄宿舍 入·退舍 및 選拔節次는 다음과 같다. 공고된 기간 내에 구비 서류를 갖추어 입사 원서를 제출하면,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선발 기준에 따라 신입생은 冠岳舍에서 컴퓨터 추천에 의해 고학년 및 대학원생은 소속 단과대학에서 선발·추천에 의해 선발하게 된다. 선발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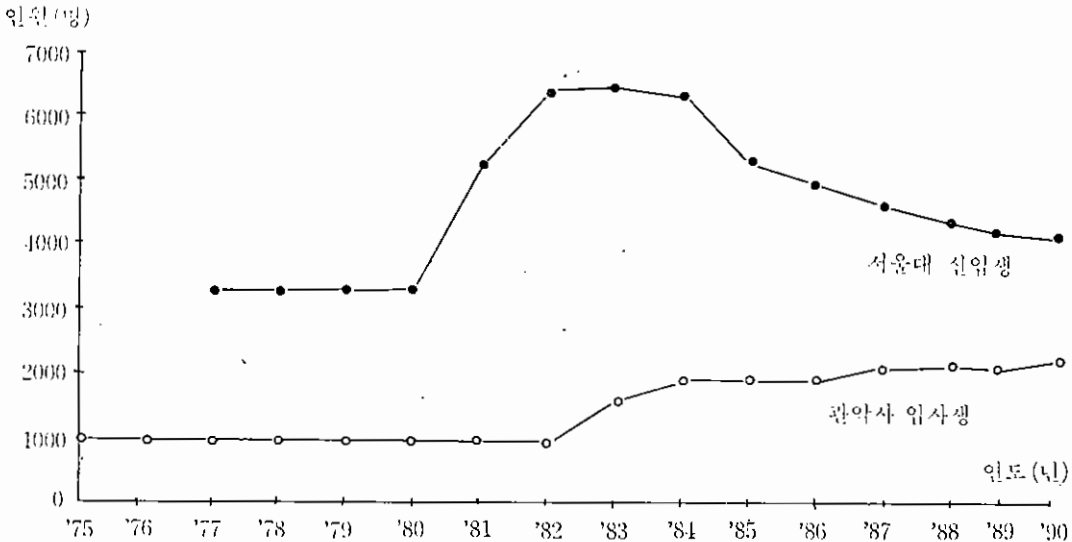
사생은 소정의 절차에 의해 등록을 하고, 개강과 함께 입사시에 등록 서류를 제출하여 휴연·비휴연, 고학년·저학년을 고려하여 배정된 방호실에 입사하게 된다. 퇴사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2학기 중강과 함께 퇴사를 하게 되며, 입사시 지급 받은 공용 비품을 반납하고 퇴사하게 된다.

冠岳舍의 舍生 收容能力은 서울대 재적 학생 30,662명(대학: 24,065명, 대학원: 6,597명)<sup>1)</sup> 중 약 7.7%(2,348명)를 수용할 수 있다. 1990년 현재 수용 능력 2,348명 중 노후 시설의 보수로 인해 사생등 1개동이 수리·보수중이고 2,186명의 사생이 선발되어 생활하고 있다. 이 학생들의 각 학년별 구성을 보면, 신입생의 경우 '지방 출신 신입생들의 생활 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 흡수'라는 설립 목적에 의하여 신입생 가운데 지방 학생이 약 63.3%(1,527명, 수용

〈표 3〉 학년별·남녀별 구성

구분	신입생		고학년		대학원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인원(명)	1,254	273	240	160	194	65	1,688	498	2,186
구성비(%)	57	13	11	7	9	3	77	23	100

〈표 4〉 관악사 수용 능력의 연도별 추이



1) 서울대학교, 대학백서 1987·1988, 1988.8, pp.54~55 참고.

능력의 약 70% 차지), 대학원생이 259명(수용 능력의 약 12%), 그리고 고학년이 400명(수용 능력의 약 18%)이 생활하고 있다.

### (3) 방학중 이용

방학 기간중에는 서울大 在外國民敎育院에서 약 2주일에 걸쳐 해외 교포 자녀의 교육을 위한 숙식 시설로 일부 시설을 이용하고, 기타 각 단과대학의 협조·의뢰에 의해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업과 연구의 진행을 위하여 여름 방학 기간중에 일부 사생동을 개사하고 있다.

여름 방학 개사는 ① 계절 수업을 수강하는 사생, ② 대학원과 학부 졸업 예정자로서 졸업논문 작성 및 연구와 실험을 필요로 하는 사생, ③ 기타 서울대 공식 기관이나 지도 교수가 주관하는 강좌나 실험에 참가하는 사생 등을 대상으로 개사되며, 1985년에 대학원생을 위하여 처음 개사한 이래 1989년에는 학부생에게도 여름 방학중 기숙사 이용이 허용되어 현재 약 950명의 대학원·학부생이 이용하고 있다.

### 2) 施設案內

1990년 현재 冠岳舍 내에는 舍生棟 13개동과 管理棟 1개동, 厚生棟 2개동이 있다. 管理棟에는 식당, 사무실, 전산 터미널실, 목욕탕 등이 있고 앞으로는 음악감상실, 세미나실 등을 보완할 예정이다. 厚生棟에는 체력단련실, 탁구장, 일상용품·문구·과자 및 음료를 판매하는 매점, TV와 바둑을 즐길 수 있는 휴게실, 개인이 운영하는 세탁소가 있다.

2명이 사용하는 각 동의 사생실은 침대, 책상, 책장, 옷장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가 개인별로 비치된 약 4.5평의 크기이고, 사생동 4층에 사생의 면학을 위하여 독서실이 있다. 각 동에는 등 대표 전화와 각 층별로 층 전화가 설치되어 있어 외부에서 사생에게 연락 및 메모 전달이 가능하다. 또한 사생동 각 층에 세탁기가 비치되어 있어 사생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세탁 시설이 있다.

冠岳舍에서의 食事は 管理와는 별개로 식당 전문 업체가 식당을 운영한다. 식사 제도는 자유 매식제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

체제에 의하여 적정 이윤 이외의 초과 이윤은 식사 재료비로 환원되어 재투입되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 관리동 식당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에 백반을 판매하며, 식사 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후생등에서 분식 및 스낵이 판매된다.

## 4. 集團敎養 프로그램

### 1) 敎養講座

대학이라는 새로운 사회에서 생활하여야 하는 사생에게 새로운 공간에서 느끼는 문화적 충격 해소와 양식의 증진을 위하여 총장과의 대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매학기 2회 정도 大學生活에 도움이 되는 敎養講座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서울대 교육매체제작소의 도움으로 사생의 여가 선용과 교양 함양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영상 매체를 이용하여 방영하며, 사생이 직접 교육매체제작소 자료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다.

### 2) 相談活動

대학에 들어와 고교까지의 생활과는 다른 일들을 경험하면서 학업, 진로, 대인 관계 등의 영역에서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이것은 사생 개인에 따라서는 심한 심리적 불안과 우울, 그리고 스트레스를 가져다 줌으로써 사내 생활이나 학교 생활에 큰 장애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자기 성장과 생활을 위하여 각 동에 상주하는 조교와 대화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조언을 얻을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면 학생생활연구소의 전문 카운슬러를 만나 개인 상담을 할 수 있다.

### 3) 舍生 自律活動

#### (1) 관악사 봄·가을 축전

冠岳舍에서는 매년 봄과 가을에 축제(오픈 하우스)가 열린다. 각 동의 마스코트 그림을 내걸고 치루어지는 오픈 하우스 기간 동안 冠岳舍의 사생임을 스스로 뿌듯하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함께 파트너를 동반할 수 있는 영광도 함께 주어지는 청기와왈 축제가 열리게 된다. 동별 체육 대회, 冠岳舍의 합창 모임인 '한소리'

의 공연, 관악사 탁구 대회, 미술부의 시화전, 사진 전시회, 동별 장기 자랑, 입동식 등 다양한 행사가 학생들의 자율적인 활동에 의해 이루어진다. 또한 이 기간을 통하여 한 학기 동안 합심·단결하여 가장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열심히 오픈 하우스 축제를 준비한 등을 모범동과 준모범동으로 선발하여 시상하는 행사도 있게 된다.

### (2) 등산 대회

서울大는 관악산에 위치한 관계로 봄·가을에 관악산 등산 대회를 통하여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 우리들 생활의 근거지인 관악산의 등산로 정비와 쓰레기 줍기 등 자연을 보호하는 일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사생들의 자율적인 모금에 의해 각 동 앞에 기념수를 심는 행사를 시행하여 올해에는 감나무와 대추나무를 심어 관악의 청기와골이 대추골로 변모할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았다.

### (3) 씨름 활동

사생들의 여가 선용을 위하여 합창 모임인 한소리, 미술부, 탁구부, 축구부, 야구부, 편집부 등 다양한 자체 씨름 활동 모임이 있다. 한소리는 신입 사생 환영 공연과 봄·가을 정기 공연을 갖는다. 미술부는 축제를 통한 전시회, 탁구부는 봄·가을 관악사 탁구 대회를 개최하며, 야구부는 대학내 야구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바 있다.

## 5. 展望과 課題

서울大 冠岳舍는 2,350여명의 사생을 수용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大學 寄宿舍이다. 大學의 寄宿舍에 대한 役割이나 意味, 그리고 施設 수준에 대한 설정으로부터 그 運營方式과 施設現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2,350여명의 사생을 수용하는 冠岳舍 내의 行政 運營과 施設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서울大 冠岳舍는 현재 각 棟別 관리인은 교대 근무를 하는 방호원 2명, 잠무수 1명 등 모두 3명이 건물의 크기(사생 수가 104명인 棟과 298명인 棟이 있음)에 관계없이 근무하고 있다. 경제가 선진화되어 감에 따라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인건비의 상승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듯

이 冠岳舍에서도 예산 중 인건비의 비율이 55%를 차지하는 등 그 불합리성이 없지는 않다. 따라서 운영에 있어 인건비의 비율을 낮출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과 전문인에 의한 효과적인 관리 및 시설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寄宿舍는 공동 생활을 하는 곳이므로 많은 부분에서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는데, 절전(자동 점멸 장치 이용 등) 및 난방 효율을 증대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 그리고 자기 방호를 위한 출입구의 고안 등을 통하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겠다. 또한 도난의 우려를 감소시키고 관리 인원의 효율적인 운용 등을 통하여 시설 관리와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사생들의 크기 결정 및 시설 계획, 그리고 인력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와 함께 후생 시설에 있어서도 無人化·自動화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자동 판매기, 세탁 시설의 무인화(자동 판매기를 이용한 세탁 시설), 방송 시설의 현대화(母子式 인터폰 장치의 설치) 등 건축물의 사용 연한을 고려한 시설의 현대화·자동화를 통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가 個人化되어 감에 따라 寄宿舍 生活도 싸늘한 회색 빛 콘크리트 건물 군으로 둘러싸여 닫힌 방 안에서 개인 중심의 생활로 변해가는 것 같다. 寄宿舍가 먹고 자는 공간에서 벗어나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대화가 있고 젊음과 낭만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인정이 넘치는 곳이 되기 위하여는 냉랭한 고립된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 대화를 통해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건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많은 共同行事-생일 파티, 음악 및 영화 감상, 주말의 조그만 행사(막걸리 파티, 노래 자랑, 동별 운동 시합)-들이 필요하고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寄宿舍가 그동안 사회 변화의 영향을 받아 온 것도 엄연한 사실이나, 점점 메달라 가는 사회에서 가장같은 따스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동시에 질서와 규칙의 필요성을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며 고려할 줄 아는 삶을 터득함으로써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우리 사회 및 일부 대학생들의 폐단을 조금씩 개선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6. 맺는 말

구속받지 않는 젊음이 함께 하는 곳이고 자유로운 사고와 진취적인 생각이 함께 하는 곳이기  
에 大學의 寄宿舍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는 사회의 발전 정도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는 것이다. 처어철은 그가 대학 시절  
생활하였던 寄宿舍에 돌아가 보고는 ‘역시 변하  
지 않는 곳은 大學의 寄宿舍’라고 하였다. 서울  
大 冠岳舍를 떠난 초년생들이 이제는 사회의 각

분야에서 중년층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사회  
의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전문가를 키워내는 것  
이 大學 본연의 機能이라면, 이 기능을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강의와 연구를 支援하는 大學의 寄  
宿舍는 강의에 못지않게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  
고 있다고 생각된다. 대학인들이 함께 생활하면  
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며 이야기의  
꽃을 피우는 곳인 寄宿舍가 그 役割을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많은 분야에서 적극적인 投資와 支  
援이 따라야 할 것이다. \*